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12.4.(목) 18:00 (국제엠바고) 배포 2025.12.4.(목) 16:00

경제개발협력기구 부동산정보 자동교환 협정 필요성 공감 및 확산을 위한 공동성명 참여

- '29년 또는 '30년 부동산정보 자동교환 협정 가입에 대한 참여국의 목표 확인
- 정보교환 이행시 국외 부동산을 통한 역외탈세에 보다 효과적인 대응 기대

우리나라는 **12월 4일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글로벌포럼 연차총회**(인도 뉴델리)에서 프랑스·영국·독일 등 **25개 국가·관할권**과 함께 **부동산정보 자동교환 다자간 협정**(IPI MCAA*)을 **지지**하고 **동참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에 참여**하고 이를 **발표**하였다.

* Multilateral Competent Authority Agreement on the Automatic Exchange of Readily Available Information on Immovable Property: 국외 부동산을 통한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가입국간 부동산 소득 관련 정보를 매년 자동으로 교환하는 다자간 협정

이번 **공동성명**은 **조세투명성 강화와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OECD가 그동안 추진해 온 **국가간 자동정보교환 확대** 노력의 일환으로, **금융정보**('17년~) **및 암호화자산정보**('27년 이행 예정) 자동교환에 이어 **비금융자산인 부동산**까지 **정보교환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공동성명의 **주요 내용**은 **부동산정보 자동교환체계**의 필요성에 대한 **참여국의 공감**과 함께 **'29년 또는 '30년 협정에 대한 가입 목표**를 확인하는 것이다. 또한, **부동산정보 자동교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이러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보다 많은 국가·관할권**이 **참여하도록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금번 공동성명을 통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25개 국가·관할권**이 부동산 관련 조세투명성 강화를 위한 **국제공조 노력과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부동산정보 자동교환체계의 확산**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되며, 동 자동정보교환이 이행될 경우 **국외 부동산을 이용한 역외탈세**에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정부는 부동산정보 자동교환의 확산과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며, 조세투명성 강화를 위한 **국제공조**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담당 부서	세제실 국제조세협력팀	책임자	팀 장	박정주 (044-215-4670)
		담당자	사무관	조성아 (scho@korea.kr)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참고 1 공동성명문(Joint Statement) 주요내용

□ **(참여국)** 벨기에, 브라질, 칠레, 코스타리카,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대한민국**, 리투아니아, 몰타, 뉴질랜드, 노르웨이, 페루,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페인, 스웨덴, 영국, 지브롤터
(총 25개 국가·관할권)

□ **(논의배경)**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는 역외탈세 억제 및 조세투명성 강화를 위해 **조세목적의 국가간 자동정보교환**을 **강화**해왔으며, 최근 몇년간 과세당국은 조세목적의 **금융정보 자동교환을 확대**하고 **암호화자산 거래정보 교환**을 **추진**

○ 자동정보교환의 진전·확대에도 불구, 비금융자산인 **부동산정보**에 **대한 자동정보교환체계는 부재**

□ **(부동산정보 자동정보교환 체계 환영)** **해외에 보유된 부동산 자산**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관한 관련 **정보**를 **과세당국**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효율적인 조세집행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역외탈세**를 **방지**하고 **조세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제개발협력기구가 마련한 **부동산정보 자동교환 체계 환영**

○ 동 체계의 광범위한 채택은 비금융자산에 대한 조세투명성을 제고하여 조세회피 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할 것으로 기대

□ **(이행 의지)** **공동성명 참여국**은 적용 가능한 국내 절차에 따라 **'29년 또는 '30년**에 부동산정보 자동교환 **다자간 협정**(IPI MCAA)**에 가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동참 촉구)** 글로벌 **조세**의 **투명성, 공정성,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에 **다른 국가**들도 **동참**할 것을 **촉구**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참고 2 공동성명문(Joint Statement) 원문

Collective engagement to exchange readily available information on immovable property

Joint Statement of 4 December 2025 by:
Belgium, Brazil, Chile, Costa Rica, 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Iceland, Ireland, Italy, **Korea**, Lithuania, Malta, New Zealand, Norway, Peru, Portugal, Romania, Slovenia, South Africa, Spain, Sweden and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Kingdom's Overseas Territory of Gibraltar.

In recent years, tax policy developments have greatly enhanced cross-border exchanges of tax information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between tax administrations, combating offshore tax non-compliance and tax secrecy on financial accounts. This includes delivering transparency through automatic exchange of financial assets (through the Common Reporting Standard) and crypto-assets (through the 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
Despite these significant advances in 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 there is not yet a mechanism for jurisdictions to exchange information on non-financial assets, especially immovable property.

Recognising that ownership and transactions involving immovable property often have cross-border elements, we acknowledge the need for improved mechanisms to ensure that tax authorities have access to relevant information on immovable property assets held and income derived therefrom abroad to enforce tax laws effectively. We therefore welcome the new Multilateral Competent Authority Agreement on Automatic Exchange of Readily Available Information on Immovable Property (IPI MCAA) between tax authorities developed by the OECD.

The broad adoption of the IPI MCAA is an important step towards delivering tax transparency on non-financial assets. It will strengthen our ability to monitor and enforce tax compliance, and to combat tax evasion, which undermines public revenues and unfairly shifts the tax burden onto compliant taxpayers.

We aim to join the IPI MCAA by 2029 or 2030, subject to domestic procedures as applicable. We also encourage other jurisdictions to join this initiative in the collective effort to promote transparency, fairness and efficiency in global taxation.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